



## 최초의 발명 작문 현상모집 수상작품집

1976년 한국특허협회(현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상과 우리 생활'을 발간, 배포하였다. 이 행사가 지난해 제33회를 맞은 전국 초·중학생 발명글짓기·만화 현상모집 행사로 발전했다.

1973년 1월 19일 창립한 한국특허협회가 당시 '우리의 최대 무기인 두뇌자원을 양성·개발할 수 있는 길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공부하며 생활하는 가운데 발명하고 과학하는 마음을 길러서 이것을 점화로 전 국민에 전파시켜 나가기 위해' 의욕적으로 이 행사를 시작했다.

모집은 1975년 12월에, 시상식은 1976년 2월 2일에 실시했다.

당시 응모작이 몇 편이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다만 응모된 작품은 교육부(현 교육과학기술부) 심사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24편(초등학생 13편, 중학생 11편)을 선정, 시상하고 작품집에 모두 수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4편의 작품을 분석한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 왕연중 소장(영동대학교 발명특허공무원학과 교수)은 '24편 공히 최근 실시한 전국 초·중학생 발명·글짓기·만화 현상모집 작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수준작'이라고 평가했다.

( '발명특허 기네스' 는 독자여러분의 기고 및 자료제공에 따라 언제든지 바로 잡아 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편집자 주)

자료제공 : 왕연중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 소장, 영동대학교 발명특허공무원학과 교수